

2024. 5. 22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포용팀

스마트사업본부장	주성환	02-570-4612
스마트포용팀장	노희숙	02-570-4650
담당자	사업운영	강철 02-570-4675
	언론홍보	유채란 02-570-4625
관련홈페이지	http://sdf.seoul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25개 자치구 교육 불균형 해소... 디지털재단·시(市)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협력

- 5.21.(화) 14시, 「서울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(MOU)」 체결
-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시민이 균형있게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
- 올해 시범운영 '디지털 돌봄 체험버스' 사업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

- 서울시 자치구별 디지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 (이사장 강요식)이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(협회장 이은주)와 손잡고,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복지관을 대상으로 어르신 디지털 교육 사업을 확대·운영한다.
- 이와 관련해 서울디지털재단은 5월 21일(화) 14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「서울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협약식은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과 이은주 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- 이번 협약은 기존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운영하는 교육 장소뿐만 아니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보유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관까지 교육 장소로 활용하며 서울시 어르신의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인 것이 주요 골자다.
- 서울디지털재단은 자치구별 복지관들의 개별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,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선제안함으로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- 또한, 양 기관은 서울디지털재단이 운영하는 ‘어디나지원단’ 및 ‘디지털 돌봄 체험버스’ 교육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.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▲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 지원, ▲어디나지원단 스마트클리닉센터(교육장소) 모집 지원, ▲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활성화 협력, ▲디지털 역량 격차해소 우수사례 전파 등 공동 추진 등이다.

- 이에 서울디지털재단은 강사 파견 및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을 지원하고,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교육장 모집 홍보, 사업 참여자 수요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부터 6년째 ‘어디나지원단’ 교육을 운영하며 쌓아온 교육 노하우와 올해 선발된 150명의 강사풀,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‘에듀테크캠퍼스’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.
-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서울시 내 회원기관 49개소(회원수 약 690,378명)를 대상으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홍보할 예정이며,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사업 참여자 조사에 협력할 예정이다.

-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“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”며, “재단은 디지털 소외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별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더욱 고도화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- 한편, 서울디지털재단은 ‘어디나지원단’ 교육을 통해 6년간 서울시민 48,444명을 교육하고, 620명의 강사를 양성해온 바 있다. 올해는 이동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‘디지털 돌봄 체험버스’를 시범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돌봄 기기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.

붙임. 업무협약식 사진



사진1.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(왼쪽)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협회장이 함께 업무협약서 서명을 완료했다.



사진2. 서울디지털재단-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업무협약식에서 임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